

## 제4차 국제수로기구(IHO) 총회에서 인프라센터 한국 설립 확정

- 국제 디지털 해양정보 서비스 주도 국가로의 도약 기대
- 전 세계 디지털 해양경계 S-130 채택, 4회 연속 IHO 이사국 진출 등 성과

□ 해양수산부(장관 황종우)와 외교부(장관 조현)는 지난 4월 19일부터 23일 까지 모나코에서 개최된 제4차 국제수로기구(IHO,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)\* 총회에서 ‘IHO 인프라센터’의 역할, 기능, 위치 등을 담은 결의안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.

\* 국제수로기구 : 선박 항해에 반드시 필요한 해도 및 해양정보의 표준개발과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 1921년 설립(한국은 1954년 가입), 104개 회원국 가입

□ 국제수로기구(IHO)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 변화하는 국제 항해환경에 맞춰 국제해사기구(IMO) 등과 협력하여 새로운 디지털 해양정보 국제 표준(S-100)을 개발하고 있다.

○ 인프라센터는 이러한 해양정보 국제표준(S-100)의 개발 지원과 국제 보급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, 이번 총회에서 한국 설립이 확정되었다. 설립 위치는 부산광역시 문현동 국제금융센터(BIFC2)가 될 예정이다.

□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2020년 제2차 총회에서 개발하기로 결정된 전세계 해역을 지명이 아닌 고유 숫자로 구분하는 새로운 디지털 데이터셋(S-130)이 완성되어 정식 채택되었다.

○ 그 외에도 한국의 4회 연속 이사국 진출이 결정되고, 국제수로기구(IHO)와 한국 정부 간 기술협력 20주년 기념 전시도 개최되는 등 이번 총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.

□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국제수로기구(IHO) 인프라센터의 설립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해양디지털 서비스 선도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전 세계 해양 안전 기여는 물론 국내 해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□ 조현 외교부 장관은 “IHO 인프라센터 설립으로 국제수로분야에서 우리의 기여와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, S-130 데이터셋의 채택 역시 그간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의 성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	책임자	과 장	이재영 (051-773-5350)
		담당자	사무관	김태현 (051-773-5353)
담당 부서	외교부 영토해양과	책임자	과 장	정지양 (02-2100-7630)
		담당자	사무관	김태수 (02-2100-7637)
담당 부서	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	책임자	과 장	김재근 (051-400-4104)
		담당자	사무관	박봉석 (051-400-4340)



